

1

인사권 독립 맞아 소속 공무원 임용장 수여

- 시장에 있던 인사권은 의장에... 정원도 4명 늘어

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는 1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인사권 독립을 맞아 소속 공무원 20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종전 자치단체장에 있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이 지방의회의 의장에 있게 됐다.

인사권 독립과 함께 사무국 정원도 확대됐다. 기존 집행부 인사 부서에서 담당하던 인사 관련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인사업무 담당자 1명, 지방의원의 정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3명이 늘어 총 4명이 증원됐다. 정책지원관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연내 채용할 예정이다.



2

임인년 첫 회기, 제242회 임시회 운영

- 2022년 보령시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 의원 건의안 2건, 조례안 8건 등 처리



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는 임인년 첫 회기인 제242회 임시회를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 보령시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의원 건의안 2건, 조례안 8건 등 안건을 처리했다.

권승현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올해 시행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민 누구나 불편함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무장애 투표소 확대와 관련 법안 마련을 건의했다.

박상모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소유권 이전등기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배제하고 변호사 법무사의 자격보존인 제도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할것을 건의했다.



19일부터는 3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 보령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박금순 의장은 “민선7기의 내실 있는 마무리와 민선8기의 안정적인 출범이 기대되는 해인 만큼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도 선임됐다. 문석주 의원을 대표 위원으로 총 5인이 선임 됐으며 결산검사는 오는 4월 중에 있을 예정이다.

한편, 제243회 임시회는 4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운영될 계획이다.